

<http://dx.doi.org/10.17703/JCCT.2019.5.3.165>

JCCT 2019-8-21

재직자의 대학·대학원 경험이 직업전환에 주는 의미

The Meaning of University-Graduate School Experiences of Employee's for Job Conversion

이경자*, 김진숙**

Kyung Jaa Lee*, Jin Sook Kim**

요약 본 연구는 재직자의 대학·대학원 경험이 직업전환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대학원 경험이 있는 재직자 7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재직자의 대학·대학원 경험이 직업전환에 주는 의미는 크게 3개의 범주와 8개의 하위요소가 도출되었다. 첫째, 새로운 시각과 인식이 바뀌는 가치관의 변화이다. 둘째, 자신감 향상과 동기부여, 그리고 흥미와 적성을 되찾는 심리적 변화이다. 셋째, 배움의 즐거움과 인적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가족의 지지를 얻는 실생활의 변화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재직자들의 대학·대학원 경험은 자신감을 얻어 새로운 도전을 하게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되찾아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의 발현이라 해석할 수 있다.

주요어 : 재직자, 재직자의 대학·대학원 경험, 직업전환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employees' university-graduate school experiences for job conversion. For it,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by in-depth interview for 7 employees with university-graduate school experiences from Jun. to Dec. 2018. As a result, 3 great ranges and 8 sub-factors of the meaning of employees' university-graduate school experience for job conversion. were drawn. First is the change of value changing new view and recognition. Second is confidence improvement,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change recovering interests and aptitudes. Third is changes of actual life that obtain pleasure of leaning, formation of personal network, and family supports. From the above results, employees' university-graduate school experience may let them challenge new works with confidence and be analyzed as appearance of identity finding the work suitable for their aptitude and living a subjective life.

Key words : Employees, University-Graduate School Experience, Job Conversion Employees,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중독융합학과 박사과정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융합학부 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19년 5월 6일, 수정완료일: 2019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5일

Received: May 06, 2019 / Revised: June 10, 2019

Accepted: July 05, 2019

*Corresponding Author: jskim@dhu.ac.kr

Dept. of Lifelong Education Convergence, Daegu Haany Univ,
Korea

I. 서 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의 요구는 늘어가고 있다. 그에 따른 사회적 장치로써 삶의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평생학습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1]. 또한, 글로벌 경제의 흐름 속에 유럽 및 북미 국가에서는 전문적인 직업과 경력개발을 위한 순환적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 인한 계속교육기관으로써 고등교육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기점으로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의 결합이 모색되고 있다[2]. 한국의 많은 대학도 성인과 직장인의 고등교육 수요에 맞춘 입시전형을 개발하여 성인과 직장인의 대학 진학을 일반화하고 있다. 나아가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은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대학원으로 확장되고 있다[3].

현대사회는 빠른 변화 속에 지식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다기능 및 전문화된 근로자와 전문가가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사고가 직장인에게 학습욕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4]. 이처럼 직장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불안정한 고용시장으로 인한 자기개발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은 직장인에게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직장인이 대학교육 즉, 평생학습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은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대학에서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이 안정적인 형태로써 다른 과업으로 이동가능하다는 의미이며[5], 대학교육을 통해 습득된 지식이 다른 과업을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인은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습하면서 자신감 향상, 가치관 변화, 심리적 변화와 함께 실생활에서의 변화욕구는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직장인의 고등교육경험은 업무와 역할기능,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배움으로써 원하는 직업의 선택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이들의 대학교육은 직장인으로서 직업전환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직자의 고등교육 경험이 직업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미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연구는 재직자의 대학·대학원 경험이 직업전환에 주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자 개인의 실제적 경험에 초점을 둔[6] 면담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참여자는 재직상태에서 대학·대학원 경험 중 또는 경험 후 직업전환 경험이 있고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참여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성별은 남자 3명과 여자 4명으로 일 경력은 최소 2년에서 16년까지 다양하였다. 면담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시간, 추가면담요청 가능성, 비밀보장관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윤리적으로 보호됨을 알렸다. 또한, 면담 내용은 녹음 전사처리되며 철회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인터뷰를 이용한 면담으로 장소는 주로 학교교실이나 카페 등 참여자가 편안해 하는 곳으로 선택하였다. 질문의 시작은 참여자의 배경에 관한 예비질문, 대학·대학원 경험에 관한 본 질문, 직업전환 관련 마무리 질문으로 하였으며, 시간은 대부분 45분~90분, 추가면담 경우 10분~20분이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은 첫째, 전사자료를 정독하고 반복해서 읽으며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문장에 줄을 그었다. 둘째, 내용별 검토를 반복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고, 명확하게 드러난 의미 있는 주제를 분류하였다. 셋째, 공통적인 내용이나 반복되는 내용은 하위영역으로 범주화시키고 유목화 하였다. 넷째, 범주화시킨 자료를 재분석하여 주제모음을 만들고 주제를 개념별로 기술한 후 내용과 결과를 참여자들에게 공개하여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고등교육을 통한 직업전환을 이행하는 맥락은 참여자들이 진술한 문장 중에서 의미가 부여된 부분을 중심으로 38개의 구성의미와 8개의 주제묶음 3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표 1. 재직자의 대학·대학원 경험이 직업전환에 주는 의미에 대한 연구텍스트

Table 1. Research on the meaning of university-graduate school experiences of employee's for job conversion

의미	주제	범주
박팀장: 우리나라 저렇게 바뀌어야 됨 김사장: 생각의 의식전환 윤과장: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게 됨 조처장: 시대 흐름을 알게 됨	새로운 시각	가치관의 변화
정실장: 끊임없이 배워야겠다. 박팀장: 우리 교육 바뀌면 좋겠다. 문계장: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뀜 조처장: 시대적 흐름 알게 됨 김사장: 의식전환이 됨 윤과장: 가치관을 변화시킴 이부장: 틀을 깨는 듯한 느낌	인식의 변화	
김사장: 잘 할 수 있을 것 같애 이부장, 문계장: 자신감 회복 정실장: 당당한 면 생김 박팀장: 졸업장으로 당당해짐 조처장, 윤과장: 자존감 높아짐	자신감 향상	심리적 변화
이부장: 하고 싶다는 욕구 정실장: 언니가 멋져 보임 김사장: 교수자들 보고 멋지다	동기 부여	
윤과장: 맞는 적성을 찾기 위해서 조처장, 이부장: 좋아서 하는 일	흥미와 적성	실생활의 변화
김사장: 배워가면서 즐겁다. 조처장, 이부장, 윤과장: 배움이 재미있음	배움의 즐거움	
김사장, 윤과장: 사람들 만남 정실장: 교우를 통해 이부장, 조처장: 대인관계 넓어짐. 박팀장: 자문 구할 수 있는 교수님, 힘이 되어주는 동기생	인적네트워크 형성	
박팀장: 딸 해보세요, 잘 될 거예요 정실장: 남편, 자녀 호응해줬다. 윤과장: 당연히 와이프 문계장: 딸, 며느리, 아들이 좋아해요	가족의 지지	

1. 가치관의 변화

본 연구의 범주인 가치관의 변화에서 나타난 주제 묶음은 새로운 시각과 인식의 변화로 나타났다.

1) 새로운 시각

대학·대학원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기존 방향 전환으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된다.

모르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되니까 방향과 의식전환이 많이 됐죠. 시야도 넓어지고 더 생각하게 되고.(김사장)

사회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넓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중략...) 국소적인 시각에서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윤과장)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보려고 하는 만큼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참여자들은 새로이 접하게 되어 아는 일과 보는 일 모두 배움을 통한 새로운 시각으로 시작됨을 시사하고 있다.

2) 인식의 변화

안드라고지는 성인의 변화를 목표로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7]. 즉, 성인교육은 활동을 통해 사람을 변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자들은 고등교육을 통해 변화를 인식하게 된다.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교육도 저렇게 바뀌면 좋겠다. 배우는 입장에서 자라나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하다보면 언젠가는 바뀌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박팀장)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틀을 깨는 듯한 느낌의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걸 배우면서.(이부장)

공부하면서 매사에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뀌었죠. 남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무엇을 보면 애들 수업 갈 때 활용하고 싶고 내일을 생각해서 자제하는 힘이 늘었고.(문계장)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세상을 보는 인식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배움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변화시키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을 밝히고 있다.

2. 심리적 변화

심리적 변화에서 나타난 주제 묶음은 자신감 향상과 동기부여, 흥미와 적성으로 나타났다.

1) 자신감 향상

자신감은 자신이 능력 있고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이라 할 수 있다[8]. 자신감은 어떤 일을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없애 준다는 것을 참여자의 언어를 통해 알 수 있다.

신인들 이력서 볼 때마다 학벌 좋은 사람이 많아. 나한테 배울게 있겠나 생각하니 가르치는 입장에서 주눅이 들더라 (...중략...) 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학교 와서 켈 좋은 거 자신감입니다.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이 두려움 때문에 권쭙보고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박팀장)

평소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렇게 6년의 학업기간이 있다 보니 나 스스로 당당한 면은 생긴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당당

하게 하면서 좀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정실장)

대학원 경험에서 자존감, 이런 것들을 높였던 결과가 그렇게 옮길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니었나 싶어요.(...중략...) 석사를 땀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윤과장)

자존감이 높아진 것도 같고 직업을 바꾸게 되면 새 일을 한다는 자체가 두려움도 있고 뭔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적응이 될 거라는 학습된 것.(조처장)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겨서 실수해도 떨리는 것도 없고 재치 있게 넘기는 그런 거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매사에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뀌었고요.(문계장)

신입보다 낮은 학력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며 이를 뛰어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고등교육 경험은 학위로 인한 실제 역량 외에 자신을 판단하는 하나의 사회적 기준으로 작동하며, 서열비교로써 그 기준이 실제적 역량을 더욱 크게 보이게 하며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이들에게 자신감 향상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믿으며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킨 것임을 말하고 있다.

2) 동기부여

고등교육의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함을 느끼고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며 성장함을 말하고 있다.

교수자들 보니까 멋지다 나도 저런 직업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직접적으로 공부하면서 더 알아가니까 재밌고, 어차피 배웠으니까 활용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김사장)

교우들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 언니가 좀 멋져 보이긴 했어요. 언니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직업전환 계기가 왔던 것 같애.(정실장)

이수경[9]은 선망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대인간 정서로써 동기부여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교수자와 교우의 직업활동에 대한 선망을 느끼며 자신도 직업 전환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 받는다. 더 잘 하고자하는 노력으로 자기향상을 통해 원하는 직업으로 전환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3) 흥미와 적성

적성이란 어떤 교육이나 훈련 또는 활동에 의해 개발

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10]. 따라서 적성은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의 잠재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평소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적성에 맞는 직업으로 전환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수익은 불안정하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만족감은 지금이 더 낫죠.(이부장)

연젠가는 직업을 6번인가 바꾼다고 하는데 글썽(생각에 잠기며)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해오다보니까 직업전환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시대적 흐름을 알게 되었죠. 공부가 좋아서 했는데 기회가 주어졌어요. 현 직업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조처장)

시대의 빠른 변화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직업을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고 싶은 일을 용기 내어 할 수 있다는 점이 대학·대학원 경험이 주는 효과일 것이다. 이로 인해 흥미와 적성을 찾아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함을 말하고 있다.

3. 실생활의 변화

실생활 변화에서 나타난 주제 묶음은 배움의 즐거움과 인적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가족의 지지로 나타났다.

1) 배움의 즐거움

몰입은 사람들이 어떤 활동에 깊이 집중하고 있을 때 느끼는 의식상태를 말하는 것으로[11,12] 몰입상태에 있을 때 즐거움과 자기충족감을 맛보게 된다. 참여자들은 배움을 통하여 몰입을 경험 하고 있었다. 학습과정을 즐거움으로 인식하고 이를 심화시켜 몰입함으로써 자신감과 만족감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활력소로써 역할을 하고 있었다.

스스로 학습하니까 재미있으니까 더 열심히 뛰어서 한 것 같아요. 배움의 즐거움을 뒤늦게 느낀 거죠.(김사장)

학교 오면서 불안감이 없고 재밌게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만족도는 높거든요. 옛날에는 주눅 들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배우면서 그렇게 안 살게 되었다나.(이부장)

참여자들은 배움의 가치와 즐거움을 깨닫고 안정감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주도해 나아갈 수 있

는 새로운 자아정체성이 발현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2) 인적네트워크 형성

인간은 누구나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13]. 고등교육 경험을 통해 만난 교수자와 교우의 삶의 궤적을 보며 비전을 탐색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고등교육 경험을 통해 소속되어 함께하는 것에 의미를 느끼고 이를 통해 다른 직업 세계에도 관심을 가진다.

대학원을 오니까 경영이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같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가보면서 도움된 것도 있어요.(...중략...)힘이 되어주는 동기생도 있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교수님도 계시고, 수업시간에 배우고 이러면서 확신이 선 것 같아요.(박팀장)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도움 되어 좋았어요. 교우를 통해 자격증 취득하면서 직업전환 계기가 왔던 것 같애.(정실장)

사회관계망 자체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알게 됨으로써 뒤에 있는 인프라나 도움 같은 것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조처장)

고등교육 경험에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고 정보를 공유한다. 교우들과의 관계형성은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식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직업전환 하는 데 있어 정보 공유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3) 가족의 지지

가족의 지지는 개인이 인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지원 즉, 기쁘거나 슬플 때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주는 관심, 필요하다거나 어려운 것들에 대한 도움, 힘들 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격려,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인정, 필요한 것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 등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가족에게서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

학교를 다니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딸 셋이 아! 멋지다고 인정 하면서 한번 해 보세요, 잘 될 거예요.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도 바뀝니다.(박팀장)

남편과 우리 자녀들 많이 호응 해줬어. 친정식구들은 나보다 더 뿌듯해 해요.(...중략...)공부하면서 에 입장에서 보게 되었죠. 교육으로 인해 가정이 원만해지고 가정이 원만해짐으로 직업전환도 할 수 있었으니.(정실장)

당연히 와이프죠. 잘 생각해보라하고 걱정을 하긴 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어주는 스타일이라서.(윤과장)

어려운 환경인데 공부하는 거 다른 사람들 이해 못한다고 하는데 엄마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해요. 말하고 우리 며느리 아들이 이 일하는데 대개 존경하고 좋아해요.(문계장)

가장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것을 가장 지지해 주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다. 참여자들은 가족으로부터 자신이 인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지원에 대한 인식을 느끼며 원하는 직업으로 전환 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재직자의 대학·대학원 경험이 직업전환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의 개별적 경험을 통해 3개의 범주와 8개의 주제목음, 38개의 구성의미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약, 논한 것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 1범주인 가치관의 변화에서 참여자들에게 고등교육 경험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느낀다는 배움의 가치를 깨닫는다.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사고의 폭을 넓히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부를 함으로써 접하지 못했던 부분들과 만남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성인의 변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안드라고지 의미를 주장한 학자 놀스[7]와 맥을 같이 한다.

제 2범주인 심리적 변화에서 참여자들은 학위와 학벌로 인해 더 당당해지고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이라는 점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신감 향상의 원동력임을 인식한다. 선망을 느끼며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용기를 가진다. 고등교육을 통해 얻은 자신감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며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고 싶은 일을 용기 내어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경험은 삶의 영역을 넓혀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택의 권한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고등교육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심리적 변화를 가져옴을 의미한다.

제 3범주인 실생활의 변화에서는 알아가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삶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고등교육 경험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알게 되고 가족의 긍정적인 지원을 인식한다. 참여자들에게 고등교육을 통한 배움의 즐거움은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삶의 활력소로써 의미가 되며 배움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이것은 자기주도적 학습 민선형[14]과 맥을 같이 한다. 학우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며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 네트워크 형성은 직업 전환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것은 중장년층 경력전환에서의 경력적응에 대한 선행연구인 김나형, 진성미[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 발현된 것으로써 원하는 직업으로 전환함은 실생활의 변화를 의미한다.

고등교육 경험을 하면서 직업전환을 이행하는 맥락은 크게 대학·대학원 경험에서 오는 가치관의 변화, 심리적 변화, 실생활의 변화의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이것은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자아정체성의 발현과 원하는 직업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하며, 직업전환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변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직자의 대학·대학원 경험은 자신감을 얻어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되찾아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의 발현이라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대학원 경험을 접하면서 직업전환하는 재직자에게 도움을 주고 직업전환에 대한 대학·대학원 경험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References

- [1] Lee, J, J.(2017). A Study on Boundary-Crossing Experience between Work and Academics from Adult Learners' Graduate School. Graduated Docto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 Knust, M., & Hanft, A.(2009). Continuing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structures, organization and provisions. Dordrecht.
- [3] Chung, J, S., Lee, N, C., & Lee, K, S.(2009). Measures of Improving Special Graduate Schools for Higher Vocation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Polycy Rearch, 12
- [4] Kim, J, Y.(2016). A Study on Student-Worker's Learning and Transfer. Graduated Docto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5] Tuomi-Grohn, T., Engestrom, Y., & Young, M.(2003). From transfer to boundary-crossing between school and work as a tool for developing vocational education: An introduction. In T. Tuomi-Crohn & Y. Engestrom(Eds.), Between school and work: new perspective on transfer and boundary-crossing (pp.1-15). Oxford: Elsevier.
- [6] King, N., & Horrocks, C.(2010).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 [7] Knowles, M. S., Holton, E. F. D., & Swanson, R. A.(2016). Eun-Soo, Choi(Ed.). Adult Learner :The Definitive Classic in Adult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press.
- [8]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In T. A. Wills (Ed.). Basic process in helping relationships (pp.4-5, 96-117) New York: Academic Press.
- [9] Lee, S, K.(2014). An Exploratory Study 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Workplace Envy. Graduated maste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Seoul.
- [10] Kim, J, B.(2001). A Study for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Current Talent and Aptitude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 18, 23-52.
- [11] Csikszentmihalyi, M.(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Experiencing flow in work and play. San Francisco: Jossey-Bass.
- [12] Csikszentmihalyi, M.(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 [13] Maslow, A. H.(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 [14] Min, S, H.(2006). A Study on Adult Erudition in a Degree Program. Graduated Docto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15] Kim, N, H., & Jin S, M.(2013), Career Adaptabilities as Experienced by Mid-Career Adults in Career Transition.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Research, 8(1), 28-53.

※ 이 논문은 2018년도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논문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